

# 한림 21세기 계획

박 형 진

한림대 의대 교수, 기획실장



## 1. 머리말

21세기에는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적으로는 다자간 협력체의 등장으로 인한 국가간 교류의 급속한 확대 및 세계화 추세는 외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아시아-태평양권의 부상 및 남북 통일은 우리나라의 문화·정치·경제·사회에 있어 변화와 발전을 초래한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한 지방화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성화와 문화적 발전에 대한 욕구를 촉발한

### 각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1. 21세기 연세대학교의 발전상 : 세계적 연구·교육 기관으로의 도약
2. 전남대학교, 그 미래와 현주소
3. 이화 21세기 발전계획의 추진 과정과 주요 내용
4. 열린 대학을 지향하는 젊은 대학 명지대학교
5. 한림 21세기 계획

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은 정보화·자동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산업구조와 직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된다. 또한 생명과학의 급속

한 발전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기술의 발달로 이어지며 이로 인하여 인간 수명이 연장된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물질적 풍요로 인하여 삶의 질의 향상과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다.

21세기에는 대학의 교육 환경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견된다. 교육부, 교육개혁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보고를 종합하면 21세기 초에는 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대학 진학인구가 1.0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하여 준칙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대학의 신설, 대학정원 자율화의 확대, 편·입학의 확

대, UR 협정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 등은 모든 대학으로 하여금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한다. 국가 주도의 대학평가제 도입과 그 결과에 따른 대학의 차등 지원은 대학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21세기의 시대상황과 교육환경의 변화는 대학의 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강요할 것이다. 따라서 사립, 후발, 소규모, 지방대학인 한림대학교로서는 자리매김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다란 도전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림대학교는 개교 14년의 일천한 역사 속에서도 재단의 과감한 투자와 대학 구성원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착실히 발전하였으며, 그 결과 여러 종류의 대학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림대학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학이 다양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Top 10'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2002년에 있을 개교 20주년을 앞두고 제 2의 도약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2. 계획의 개요

### 1) 발전목표 및 특성화 전략

#### ① 발전목표

한림대는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종합적인 교육여건 면에서 '국내 Top 10'의 위치를 유지하며, 21세기의 세계와 한국의 발전방향에 부응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학문연구센터로 성장한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림대학교가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

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소재 기업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역민에 대한 봉사를 강화한다.

#### ② 특성화 전략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한림대의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학습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대학의 학문적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육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한림대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학 분야와 생명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한림대가 소재한 강원도는 동해를 끼고 있으므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의 교류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한림대는 '동북아지역학 대학원'을 중심으로 동북아 중심의 지역학 분야를 육성한다.

한림대는 설립 배경상 의학 분야에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생명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육성하여 산·학·연 협동연구를 촉진한다. 지방에 위치한 한림대로서는 수도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에 '한림대학교 서울센터'를 설립하고 이 곳에서 다양한 학술활동과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울센터가 한림대와 수도권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 2) 교육체제의 개편

#### ① 학부조직

현행 조직체계의 문제점, 향후 사회변화, 한림대의 특성화를 고려하여 학부조직 체계를 '학군제'로 개편한다. 앞으로 제반 여건이 성숙하면 각 학군은 단과대학으로 독립시키도록 한다. 학부조직의 기본 단위는 학

과로 하되, 학과간의 유사성이 많은 경우에는 학부제를 채택하여 통합 운영하도록 한다. 조직 개편의 주요 목표는 우선 연계성·유사성·통합성이 높은 학문분야를 하나의 학군에 소속하게 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둘째로 학군별 교과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며, 셋째로 학-연-산-관 협동체제의 구축을 통해 학군별로 학문적·사회적 자생성을 높이는 데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5개 단과대학, 29개 학과 체제(총정원 6,440명)를 5개 단과대학, 6개 학군, 6개 학부, 24개 학과 체제(총정원 7,960명)로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 인문대학 : 인문학군(철학과, 사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지역학군(중국학과, 일본학과, 러시아학과, 미국학과)  
※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미국학과를 지역학군에 신설한다.
- 사회과학대학 : 사회과학군(심리학과, 사회학과, 정치행정학부, 경제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과, 신문방송학과)  
경영학군(경영학과, 재무학과)
- ※ 정치학과를 정치행정학부로 확대 개편하고 행정학 전공을 보강하여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역개발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한다.
- 자연과학대학 : 자연과학군(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생명과학군(생명과학부, 체육학과)

※ 생명과학부는 기존의 생물학과, 유전공학과, 영양학과, 환경학과를 통합한다.

○ 정보전자공과대학 : 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부, 정보통신학부, 소프트웨어학부

○ 의과대학 :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 ② 대학원조직

대학원 육성을 통해 학부와 대학원 간의 분업과 균형을 도모하고,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한다.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다원화하며, 대학원 총정원은 2,000명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 일반대학원

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고급인력을 사회에 조기 배출하기 위해 학부·대학원 통합과목을 개설하는 한편, 석·박사 통합과정을 추진한다.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정시제 대학원생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수업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간제 등록제'를 실시한다.

#### ○ 특수대학원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영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동북아국제학대학원 외에 정책대학원, 정보과학대학원 등을 설치한다.

### 3) 교육과정의 개혁

교육과정의 개혁은 21세기 미래사회의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며 교육소비자와 수요자의 욕

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용성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둔다.

#### ① 교양교육의 개혁

##### ○ 기초교양 교육의 강화

전공과목의 이수, 취업 준비, 삶의 영위에 기초가 되는 도구적 내용인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한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급의 수강인원을 '20~40명'으로 구성한다.

※ 교과목 및 이수학점 : 교양작문 4학점, 교양영어 10학점, 교양컴퓨터 5학점, 교양체육 2학점, 교양한문 2학점

##### ○ 일반교양 교과목의 다양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외국어 및 외국문학, 문학 및 예술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에서 3학점 이상씩 이수하게 한다. 교과목으로 특정 주제를 깊이있게 분석하는 '주제중심 과목'을 확대한다.

##### ○ 사회봉사 교과목의 개설

사회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도록 사회봉사 과목을 교양과정에 개설하고, 교양선택으로 2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한다.

#### ② 전공교육의 개혁

##### ○ 복수전공제의 실시

전공 선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복수전공제를 도입하며, 이를 위해 전공과목을 33학점 이상 이수하는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실시한다. 단일전공제도 인정하며, 이 경우 전공을 6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전공 필수 교과목을 폐지하는 한편, 전공 교과목을 '수준별'로 분류하고 수준별 최소 이수 권장 교과목 수를 지정한다.

##### ○ 실용성 높은 전공 교과목의 개발

재학중 1학기 정도의 외국 유학시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관련 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방학중 기업체 또는 관공서 등에서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설한다. 또한 교수의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한다.

##### ○ 전공 교과목의 개방

모든 학과가 개설하고 있는 전공 교과목을 타 전공 학생이 일반선택 또는 전공선택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4) 연구기능의 강화

21세기에는 대학의 연구 및 지식생산 기능이 더욱 요구되는 바, 이러한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체제를 개편하고 교수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① 연구체제의 개편

목적이 특성화되어 있고, 연구업적이 우수하며, 자립적인 재정 기반을 갖추고 있는 연구소는 현상태로 존속시킨다. 대외경쟁력, 연구업적, 자생력 면에서 취약한 연구소는 분야별로 통합하여 자생력을 높이고 학제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 ② 연구 활성화 지원

교수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과 '연구년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교수업적평가제'를 도입한다.

##### ③ 한림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대학 관련 연구단지는 미래형 연구체제이며 외부 기업과의 산학협동을 촉진하고, 연구성과를 사회에 효율적으로 환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림대도 주요 특성화 전략의 하나로 생명과학과 정보전자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고 대학(대학연구소), 연구소(정부출연 연구소 및

기업부설 연구소), 기업체(산업체 연구개발 팀 및 창업기업) 등을 입주시켜 긴밀한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연구개발하도록 한다.

#### 5) 교수총원 및 인사제도 개선

정부의 대학설립 준칙상의 기준에 의거하여 교수를 충원한다. 연구소에 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수를 두며, 기초교양 교과목을 위하여 강의전담 교수를 둔다.

##### ① 겸임 및 특임교수제의 활용

교수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학과간, 연구소간 또는 학과와 연구소간에 공동 소속을 갖는 겸임교수를 임용하며, 전임교수와는 별도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우수한 사람을 특임교수(석좌교수, 연구교수, 객원교수, 명예교수)로 채용한다.

##### ② 교수업적평가제 실시

교수업적을 교육, 연구, 봉사의 세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엄정하게 평가하되, 전공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를 교수의 재임용, 승진, 포상, 연구비 지급, 기타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한다.

#### 6) 정보캠퍼스의 실현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서비스 개선을 통한 조직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내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별·기관별로 서버를 설치·운영하고, 정보통신망을 ATM 망으로 보완한다.

##### ○ 교육 정보시스템

교과목별로 교육정보 홈페이지를 개설하

여 수업계획서, 수업내용, 자료 등을 대학별 서버에 수록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원격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연구지원 정보시스템

종합적인 학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원격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연구 관련 회의와 세미나가 가능하도록 한다.

##### ○ 행정 정보시스템

현재 사용중인 행정 정보시스템을 기능에 따라 경영정보, 학사정보, 행정관리, 사무자동화, 정보서비스 시스템 등으로 나누어 개발함으로써 행정업무를 완전자동화한다.

##### ○ 전자도서관 구축

중앙도서관을 전자도서관, 미디어센터로서의 기능을 갖는 학술 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D/B화하여 LAN을 통해 접속하도록 하며 CD-NET, 인터넷, 위성통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7) 학생선발 및 지도

##### ① 학생선발

일반전형에서 일반선발 외에 학교장 추천자,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 학생회 대표, 봉사상 수상자, 체육특기자 등을 선발하며, 특별전형에서 농어촌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선발하는 등 다양한 전형방법을 도입한다.

##### ② 학생지도

학교가 주도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권장하는 등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또한 취업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work day를 실시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영어 및 컴퓨터에서

졸업 필수자격제를 실시한다.

#### 8) 사회교육 확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식, 기술, 정보를 지역사회에 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열린 교육체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교육원, 외국어교육원, 경영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동북아국제학대학원, 한림과학원, 태동고전연구소 등 대학 부설기관 및 연구소로 하여금 시민교양강좌, 직장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여성과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등을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 9) 국제교육 확대

##### ① 외국어교육 강화

외국어교육원에 외국어 강의전담 교수수를 증가시키며, 멀티미디어 언어실습실을 확장 보강한다. 외국어 관련 학과의 해외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분교'를 설치하며 외국 대학과 학점교류를 확대한다.

##### ② 국제교류 확대

동북아국제학대학원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의 주요 대학들과 실질적인 학술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북아 학술협력체'를 구성한다.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어교육원에 '한국어교실'을 개설하며, 동북아국제학대학원의 '한국학 전공'을 활성화한다.

### 3. 계획의 성안과정

1993년 한림대 총장은 '적폐로부터의 비약', '대학의 갈길을 묻는다' 등의 제안서에서 그리고 설립자는 '한림대의 내일에 바람'

이라는 제안서에 한림대의 정체성 확립과 개혁과제를 제기함에 따라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94년 초 교수세미나에서 설립자가 '21세기의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한림대학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세우자'고 제의함에 따라 성안작업이 구체화되었다. 1994년 3월부터 대학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0년대 한림포럼'을 2년간에 걸쳐 28회나 개최하였으며, 여기서 발표·토론된 주제는 모두 52개 과제에 이른다. 1995년 4월부터 1995년 8월에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따라 85명의 교수가 참여한 11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기 분야별 장기발전계획안을 작성하였다. 1995년 12월부터 총장 직속으로 구성된 '새대학구상위원회'가 그간 토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1996년 1월 '한림 21세기 계획' 초안을 마련하였다. 1996년 4월부터 신임 총장에 의해 새로이 구성된 '한림 21세기 계획위원회'에서 초안을 보완·마무리하여 동년 8월 '한림 21세기 계획: 1996~2005'의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한림 21세기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안에 포함된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에 관하여 재단과 협의를 완료하고, 법인이 사회의 동의를 얻어 1996년 9월 1일자로 드디어 본 계획이 확정되었다.

'2000년대 한림포럼'에는 교수 외에 직원, 학생, 동창회 간부 등 한림대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개방함으로써 이 포럼을 장기발전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합의가 전 구성원간에 폭넓게 형성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하였다. 또한 각 위원회에서 마련한 시안은 대학의 공식기구나 공개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한림 21세기 계획을 성안하면서 이치

럼 복잡한 과정을 거친 이유는 첫째로 성안 과정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둘째로 대학 구성원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에너지를 집약하기 위해, 셋째로 대학 구성원이 어떤 형태로든 성안과정에 참여해야 실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 4. 맺는 말

한림대는 1982년 강원도 춘천에서 개교한 이래 지난 14년간 지방 사립대학으로서 그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독특한 개성과 정체성을 갖기 위해 '작지만 위대한 대학'을 지향하며, '연구는 세계적으로, 교육은 국가적으로, 봉사는 지역적'으로 실시하는 학술·교육기관으로서 학문적 수월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 노력의 결과 1995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대학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적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한림대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수만은 없다.

여기서 21세기에 예상되는 시대적 사회 환경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한림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한림 21세기 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군제와 학부제의 도입, 영어를 포함한 도구적 교과목의 교양 필수화, 복수전공제 실시,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도입, 전공 교과목의 개방 등 교육체제와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강화하여 학생의 전공선택 및 전과기회를 넓혀 주는 계획과 사회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등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위한 계획 등 교육

개혁적 조치이다. 둘째는 정원 자율화 대학에 걸맞은 우수한 교수의 충분한 확보, 교수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학과간, 연구소간, 학과와 연구소간의 겸임교수제 도입,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특임교수제의 활성화이다. 셋째는 한림대가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북아국제학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학 분야의 육성과 한림대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생명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등 특성화 전략이다.

한림 21세기 계획 중 상당 부분은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이미 착실히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그 결과 한림대가 1996년에 교육부로부터 '정원 자율화 대학'으로 지정 받았으며 또한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그러므로 한림 21세기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교육개혁 과제를 성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림대는 한림 21세기 계획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을 구축하여 교육여건 면에서 국내 'Top 10'의 위치를 유지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학문연구센터'로 훌륭히 성장할 것이다. ■

---

박형진/가톨릭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획실장을 맡고 있으며, 가톨릭대 의대 교수, 미국 로체스터 대학 의대 연구원, 한림대 의과학 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주요 논문으로 "Effects of pancreatic polypeptide on insulin action in exocrine secretion of isolated rat pancreas" 외 다수를 발표했다.